

【자료소개】

『부산의 당제』 유보(遺補) 자료

김 승 찬 / 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필자는 『부산의 당제』를 집필·발간된 뒤, 다시 부산광역시의 당산을 답사하여 당시 조사되지 못한 당산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이를 보충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부산의 당제』에 기술된 마을의 위치와 개관(역사, 성씨분포, 호구 수, 생업, 문화 시설 등)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부산지명총람』(제1권 ~ 제8권, 1995년 ~ 2002년)과 『부산의 자연마을』(제1권 ~ 제6권, 2006년 ~ 2011년)¹⁾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당산 조사에 특히 반여동 당산 조사에 도움을 준 주영택(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장)님에게 감사드린다.

1. 부산진구 가야1동 할배당산

- 제당의 소재지 : 가야1동 12-239번지로, 가야1동사무실에서 서쪽 200m 지점인 수정산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 제당의 건립 연대 : 마을이 형성되면서 당산집이 있었는데, 西紀一九七八年戊午十月十五日申時改築上樑하였다.

1) 『부산의 자연마을』은 제1권(2006년)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편, 제2권(2007년)은 강서구편, 제3권(2008년)은 해운대권 기장군 기장읍편, 제4권(2009년)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편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제5권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편으로 2010년, 제6권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편으로 2011년 발간할 예정이다.

· 제당과 신격 상징물 : 제당은 대지 16.3평(앞면 6m, 옆면 9m)에 건평은 2.9평(앞면 310cm, 옆면 310cm)이며, 좌향은 동남향이다. 기와 사모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며, 문은 여닫이 빗살무늬의 교창 두짝 문이다. 제단은 직사각형 나무판 제단(앞면 270cm, 옆면 44cm, 높이 84cm)이며, 제단 위에는 위패상 위에 한 위패에 外主神位牌·內主神位牌라는 글이 세로로 가지런히 쓰여 있고, 제단 아래에는 미단이 네짝 문 안에 제구가 들어 있다.

· 제당의 주위 환경 : 제당의 주위에는 180cm의 블록 담장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있고, 제당의 왼쪽에 20여년생의 은행나무와 향나무가 한 주씩 있다. 출입문은 여닫이 두짝 나무문이고 문 위 처마 밑에 堂山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문에는 태극도형이 그려져 있다.

· 제관 선정 : 제관이라 칭하고, 제의 2-3일 전에 동장과 통장이 모여 헌관 3명, 집사 2명, 대축 1명을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낮 12시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의 전 3일경에 제물을 준비할 부정이 없고 깨끗한 가정을 통장회의에서 선정하여 알리면 그 가정에서 제물을 제의 하루 전에 준비하며 제물 종류와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되, 삶은 돼지머리를 반드시 얹는다.

· 제의 전과정 : 당산제뿐인데, 그 절차는 강신례→참신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음복례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당 앞에서 제관을 비롯하여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없다.(옛날에는 정월 초에 제관을 선정하고 정월

한달 금기생활을 했다)

· 제의 경비 : 가야1동의 자선단체에서 모금하며, 약 120-1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사항 : ①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마을의 풍물패가 풍물을 치며 당산각에 가서 풍물을 울리고 나서 재배하고 나온다. 당산제가 끝나면 제물을 음복하고 율놀이를 한다. ②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年正月××朔十五日××午時有其下×××敢昭告于

伽倻洞堂山祠今以聖香 平此有澤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庶羞脯醢 祇薦于神

尙饗



가야1동 당산



가야1동 당산각

2. 기장군 일광면 원리 광산마을 산신제

· 제단의 소재지 : 광산마을 앞산의 중턱, 마을회관에서 약 100m 지점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광산마을 산신단

- 제단의 건립 연대 : 1952년경이다.
- 제단과 신격 상징물 : 제단은 두단의 기단(밑기단은 앞면 108cm, 옆면 108cm, 높이 37cm이며, 윗기단은 앞면 80cm, 옆면 80cm, 높이 39cm임) 위에 폐광에서 얻어낸 돌(앞면 40cm, 옆면 15cm, 높이 76cm)에 음각으로 “日光鑛山主神”이라 내리 새긴 비석이 서 있다. 제수를 올려놓는 제단은 앞면 72cm, 옆면 62cm, 높이 13cm이며 그 아래쪽에 제주가 서서 절을 하는 시멘트단(앞면 335cm, 옆면 130cm, 높이 28cm)이 있으며, 좌향은 북향으로 마을을 향해 있다.

- 제단의 주위 환경 : 제단의 주위에는 잡목이 무성하게 서 있다.
- 제관 선정 : 제주라 칭하고, 마을의 연노한 할머니(현재 68세인 백임순 보살)가 맡으며, 대성사 스님과 마을 이장이 참석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아침(6-7시 사이)에 행하며, 1년에 1회이다. (추석에는 또 백임순 보살이 개인적으로 제의를 베푼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좌천시장에서 구입하며, 조리는 백임순보살 집에서 장만하되 삶은 돼지머리와 과일 밑 나물을 얹으며 메는 한 그릇이다. 제문은 천수경과 산왕경을 읽는다.
- 제의 전과정 : 산신제뿐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단에 차린 제수를 마을회관에 가져와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하되 부정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다.

- 금기 기간 : 제주가 보살이기에 특별한 금기는 없다.
- 제의 경비 : 마을 기금으로 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제주와 스님에게 10만원 정도를 준다.

3. 강서구 대저2동 사두당산

· 제당의 소재지 : 덕두초등학교 옆 김해공항가는 길을 건너 신소마을 앞의 용두신소1길을 따라 가면 용두마을이 나타나고, 이 마을의 끝에서 약 500m 정도 수로(水路)가를 따라 가면 대한진공성형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동쪽 벽쪽에 제당이 있다.



사두당산

- 제당의 건립 연대 : 알 수 없다.
- 제당과 신격 상징물 : 제당은 대지 7.5평(앞면 4.73m, 옆면 5.27m)에 건평은 2.3평(앞면과 옆면 이 275cm로 정사각형)이며, 좌향은 서남향이다. 청기와 팔작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문은 여닫이 철판 두짝 문이다. 제단은 대리석 제단(앞면 120cm, 옆면 73cm, 두께 5cm)으로서, 제당 뒷벽에서 51cm 앞에 네모지게 쌓은 블록(앞면 111cm, 옆면 69cm, 높이 70cm) 위에 설치되어 있고, 제단 위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제당 안의 왼쪽에 제기가 들것에 들어 있다.
- 제당의 주위 환경 : 블록을 쌓아 세멘트로 마감한 담장(높이 67cm, 두께 26cm)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있고, 담장 앞쪽에 여닫

이 철골재 문 두 짝이 있으며, 담장 밖의 양쪽에 15여년생의 소나무가 각각 1그루씩 서 있고, 그 외 향나무가 담장 밖에 나란히 둘러 심어져 있다.

- 제관 선정 : 제주라 칭하고, 두 마을(용두 · 사두)에서 정초에 선정하고, 용화사의 스님이 제의를 집전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새벽에 행하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덕두시장에서 구입하며, 조리는 제주 집에서 장만하되, 제물은 메밥 2그릇, 떡, 과일, 나물로 간소하게 올린다. 제문은 없고, 스님이 천수경과 산왕경을 읽는다.

- 제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당산 안에서 참석자만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주는 선정되는 날부터 금기에 들되, 제의를 마치면 금기생활을 하지 않는다.

- 제의 경비 : 사두에서 경비의 3분지 2, 용두에서 3분지 1을 마을 기금에서 내되, 약 30만원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요사이는 스님에게 제물 일체의 장만과 조리를 부탁하기 때문에 제주에게는 보수가 없다.

4. 해운대구 반여1동 상리 당산

- 제당의 소재지 : 장산 투구봉의 산록, 마을에서 남쪽 300여m에 위치하고 있다

- 제당의 건립 연대 : 마을이 형성되면서 당산집이 있었는데, 대들보에 新築乙丑年 西紀一九九四年四月十三申時復原이라 기술하였다.

- 제당과 신격 상징물 : 제당은 대지 9.8여평(앞면 5m, 옆면

6.5m)에 건평은 2.2여평(앞면 280cm, 옆면 258cm)이며, 좌향은 서향이다.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앞면은 붉은 벽돌을, 옆면과 뒷면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며, 문은 여닫이 두짝 나무문이다. 제단은 직사각형 시멘트 제단(앞면 200cm, 옆면 39cm, 높이 62cm)이며, 제단 위에는 堂山神位(가로 8cm, 세로 32cm, 두께 3cm)라는 위패가 위패함 속에 들어 있다.

· 제당의 주위 환경 : 제당의 주위에는 높이 128cm, 두께 60cm의 돌담장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있고, 그밖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잡목이 있다.

· 제관 선정 : 제주라 칭하고, 제의 4-5일 전에 2명을 선정하여, 1명은 당산에서, 1명은 마을 입구의 신목(전에 있던 소나무가 죽자 2004년 3월 16일에 식수한 약 7년생의 느티나무)에서 제의를 올린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낮 12시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의 전날 제물을 준비하며 제물 종류와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상리 당산

- 제의 전과정 : 당산제당 안에서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당산제를 지내며, 별도로 그 시간에 신목에서 거릿대제를 지낸다. 물론 제의 끝에 소지를 올린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당 안에서 제관을 비롯하여 마을의 참석자만이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이었으나, 요사이는 1개월이다.
- 제의 경비 : 마을기금으로 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보수는 없고 목욕비만 준다.

5. 해운대구 반여1동 중리 당산

· 제당의 소재지 : 반여 중리마을에서 남쪽 약 500m 지점(반여1동 산119번지)의 장산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 제당의 건립 연대 : 마을이 형성되면서 당산집이 있었다. 대들보에 丙寅 三月初八日戊寅午時豎柱

上樑(立柱正當黃道日 上樑來照紫微星)이라 기술되어 있다.

· 제당과 신격 상징물 : 제당은 대지 7.2여평(앞면 4.5m, 옆면 5.3m)에 건평은 3.4여평(앞면 150cm, 옆면 224cm)이며, 좌향은 북향이다.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졌으며, 문은 여닫이 한짝 알미늪샤시문이다. 제단은 직사각형 시멘트 제단(앞면 205cm, 옆면 68cm, 높이 42cm)이며, 제단 위에는 화강석 제단(앞면 110cm, 옆면 71cm, 두께 3cm)이 얹혀 있고, 그 위



중리 당산

에 높이 17cm, 폭 18cm 가량 되는 돌 3개가 붉은 방석 위 판자에 얹혀 있는데, 왼쪽부터 起村할매, 姑堂할매, 主山神靈이라 한다. 그리고 세 개의 돌 앞에는 각각 조그마한 종지 세 개가 있고, 제단 앞에는 시멘트로 향로대(앞면 25cm, 옆면 12cm, 높이 23cm)를 만들어 놓았다.

· 제당의 주위 환경 : 제당의 주위에는 높이 160cm, 두께 60cm의 돌담장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있고, 그밖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잡목이 있다.

· 제관 선정 : 제주라 칭하고, 제의 4일 전에 1명을 선정하고, 제의 때는 향토회원 5-6명이 참석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자정인데, 요사이에는 14일 오후 4시경에 올리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의 전날 제물을 준비하되 육류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해물류를 사용하며 제반은 술채로 올려 숟가락 세 개를 꽂는다. 그외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고 술은 단술을 쓰며 소지를 올린다.

당산제례순서 = 관수세수→분향(초헌관)→참신례(전제관 일동제배)→초헌례→독축(전참제원 부복)→아헌례→종헌례→축원(소지)→음복→철상.

· 제의 전과정 : 당산제와 마을 입구의 소나무(수령이 약 80여년)에서 거릿대제를 지냈는데, 요사이에는 거릿대제를 반여1동중리향토회관(반여1동중리경로당) 앞에서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에 참석한 분들만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의 앞 뒤 3일간이다.

· 제의 경비 : 향토회의 기금으로 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보수는 없다.

· 특기사항 : ① 기촌할매는 1700년경 이 마을에 살던 남평 문



중리 당산

씨 할매가 자손 없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자기의 제사를 지내 달라 하였기 때문에 기촌할 때로 좌정하였고, 1986년에 이 마을에 산 독지자 김갑동이 옛 제당을 새로이 보수하였다고 한다.

② 2009년 당산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기축년 정월 열나흘 중리 마을 삼신할머니께 반여1동 중리향토회 대표 김봉태가 고합니다.

세세년년 모셔오는 새해 첫제사를 올해도 받드오니 부디 마을내 거주하는 각성반이 가내와 그외 타성반이를 망라하여 모두의 가내와 평안과 번성을 그리고 건강을 올 한해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에 맑은 술과 안주로 제사를 받자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③ 제의는 마을 50가구를 10가구씩 나누어 순번을 정해 해마다 차례로 지낸다고 한다.

6. 해운대구 반여4동 삼어당산

- 제당의 소재지 : 반여4동 중군진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마을에서는 북쪽 400m 가량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 제당의 건립 연대 : 마을이 형성되면서 당집이 세워졌다고 한다.

· 제당과 신격 상징물 : 제당은 대지 7.4여평(앞면 5.2m, 옆면 4.7m)에 건평은 2.3여평(앞면 295cm, 옆면 256cm)이며, 좌향은 남남서향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앞면 전체는 두짝 나무문이며, 양편 벽과 뒷벽은 토석담 위에 블록을 쌓았고 제당의 네 기둥은 장주초석(長柱礎石)에 나무기둥을 놓았으며 제단은 없다. 그 대신에 뒷벽에 햇대를 질러놓고 거기에 실타래·미역·거즈천을 걸어두었다.

· 제당의 주위 환경 : 제당의 주위에는 높이 70cm, 두께 50cm의 돌담장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있고, 그밖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잡목이 있다.

· 제관 선정 : 제주라 칭하고, 제의 4일 전에 부정이 없고 제의 날과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요사이에는 옛날부터 살던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지낸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초순과 10월 초순의 길일을 택해 자정에 지냈는데, 요사이에는 정월 14일 오후 6시경에 올리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과 제의 절차 : 제의 전날 제물을 준비하되, 제반은 제의 당일에 제당 옆에서 지어 올린다. 제물 진설 및 제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고 소지를 올린다.

· 제의 전과정 : 당산제당 밖 왼편 위쪽에서 산신제를 지낸 뒤, 제물 가운데 마른명태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 당산제(姑氏 할매제, 또는 할매제)를 지내며 끝에 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수령이 약 80여년)에서 거릿대제를 지내나 요사이에는 거릿대제를 지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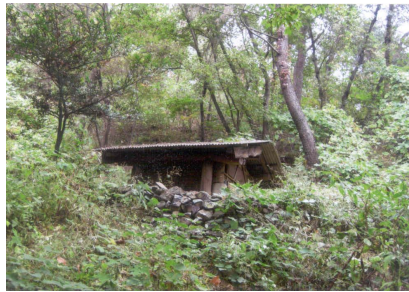
· 음복 여부 : 제의에 참석한 분들만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에는 제의 당일만 금기생활을 한다.

· 제의 경비 : 마을에 살고 있는 당산계원 20여명이 제의비를 분담하며, 약 2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보수는 없다.

· 특기사항 : 할매제에는 제물에 홍합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홍합이 여근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의 때 걸어두는 실타래·미역·거즈 천을 보아 당산할매는 산신(産神)격의 당산신임을 알 수 있다.



삼어 당산

(* 본 자료는 2005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부산의 당제』 발간 후 추가 조사한 당제를 수록한 것이다.)